

現代經濟史學的課題

趙璣溶

一、成 果

一九三〇年代를 起點으로 삼아 社會經濟史學은 새로운 面을 指向하고 있다. 問題의 設定及 解明의 方式에 있어서 確實히 從來의 古典的인 方法보다는 몇가름 發展한 차이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發展을 가져 올 수 있었는가에 對해서는 여러가지 要因이 指摘되어야 할 것이나 이 時期를 契機로 世界經濟는 두렷한 轉換에 直面했고 經濟學 및 歷史學分野에서도 이에 따라 새로운 認識이 要請되었다는 事情과도 크게 關聯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一九三〇年代以後의 經濟史學을 우리는 現代經濟史學이라고 불려도 좋다고 믿는다.

現代經濟史學이 무엇을 指向하고 있는가에 對해서는 簡單한 說明으로서 다할 수는 없는 일이나 여기서는 그 基本的인 特徵으로서 다음의 몇가지를 列擧해 두려한다.

첫째로 十九世紀以來의 社會經濟史學은 經濟發展에 對한 一般理論構成에 急하였음에 對하여 現代經濟史學은 이 概括的인 一般理論을 具體的인 史實究明으로서 再批判을 加하고 있다는 點이다. 十九世紀中葉以來 歷史學派의 經濟史的 認識이 各民族의 經濟生活의 段階的 類型을 차지 비리는데 主眼이 있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와 同時代의 社會主義學派의 經濟史認識에 있어서도 唯

物史觀의 公式的인 適用으로서 世界經濟史를 把握하였던 때문에 地方的인 偏差도 가장 重要な 具體的인 歷史事實까지도 이 一般理論構成으로 말미암아 捨像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같은 傾向은 當時 社會科學認識에 있어서의 一般的인 思潮가 되고 있었던 것이며 經濟史學에 있어서도 이러한 一般類型化傾向을 離脱하는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事情은 英國의 古典的 經濟史家에서 例를 드려 보면 더욱 明白하다. 英國의 古典的 經濟史家들은 「매나」研究에 있어서도 所謂 typical notions를 차지 내는데 急했으니 各地方的인 偏差, 卽 「매나」構造的 個別的인 特色 時代的인 變移는 不當하게도 觀過해 버렸던 것이다.

【參考】文 獻

歷史學派의 經濟史認識을 關한 F. List, Das nationale System der politischen Oekonomie 1841; W. Rostker, Die Grundlagen der Nationalökonomie, 1854.; B. Hildebrand, Die Nationalökonomie der Gegenwart und Zukunft 1848.; K. Bücher, Die Entstehung der Volkswirtschaft 1893.; G. Schmoller, Das Merkantilssystem in seiner historischen Bedeutung. — in Jahrbuch für Gesetzgebung, Verwaltung und Volkswirtschaft in deutschen Reich VIII. 1884. derselben, Grundriss der allgemeinen Volkswirtschaftslehre 1900.

唯物史觀의 關한 많은 著者의 古典的 文獻 K. Marx, Zur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1859. derselben, Lohnarbeit und Kapital, geschrieben in 1849. herausgegeben in 1891.; derselben Das Kapital 1867. derselben,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Das kommunistische Manifest) 1848; derselben, Das Elend der Philosophie 1835.; F. Engels, 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es 1884.; derselben, Eugen Dührings Umwälzung der Wissenschaft 1919.

H 古 經濟學의 文獻 Gunter, Die materialistische Geschichtsauffassung und der praktische Idealismus. (Die neue Zeit 1898 XVI. 2) Masaryk, Grundlagen des Marxismus 1899.; Wollmann, Der historische Materialismus 1900. Plechanow, Die Grundprobleme des Marxismus 1910. Boudin, Theoretical System of Karl Marx 1915.; Forchardt, Der historische Materialismus. Eine für jedermann Verständliche Einführung in die materialistische Geschichtsauffassung. 1919.

英國 古史의 經濟史學의 文獻 F. Pollok and F. W. Maitland The History of English Law before the Time of Edwards I. vol. i. Cambridge, 1898. Frederic Seebohm, the English Village Community, Examined in its Relations to the Man orial and Tribal Systems and to the Common or Open Field System of Husbandry, An Economic History 1883. London, Sir Paul Vinogradoff, Villainage in England, Essays in English medieval History, Oxford, 1892. F. W. Maitland, Domesday Book and Beyond, Three Essays in the Early of England, Cambridge, 1897.; Sir William James Ashley, An Introduction to English Economic History and Theory, pt. i, The Middle Ages, London and New York, 1888 同入의 Surveys Historic and Economic, London, 1900.

經濟史認識에 있어서의 이러한 類型化傾向에 對한 反省은 今世紀初에서 始作된다。今世紀에 들어와서부터는 十九世紀의 反動이라고 하리만큼 個別的 特殊의 部門의 研究가 盛行했다。前述한英國 經濟史學界에서도 이와같은 傾向이 뚜렷해졌던 것으로 N. Neilson, Clark, A. Billard, K. Feiling, F. M. Stenton 등 一連의 學者들이 「메카」의 個別的 研究를 諸地方 또는 各時代의 特殊研究에

依하여 從來의 古典的學說에 對하여 具體的인 事象을 드러 異議를 提起했던 것이다。獨逸에 있어
서도 事情은 이와 一般이 었다。原始的인 土地所有關係에 關한 十九世紀 以來의 古典的인 理論에 對
하여 十九世紀末葉부터 今世紀에 이르러 方法論의 反省, 史料의 再檢討가 이루어졌다。K. Lamprecht,
Fischmann, Dopsch 등은 所謂 原始共同體의 始原的인 遺制라고 認定되던 *Gehörschaft*, *Hutberg-
genossenschaft*에 對하여 새로운 批判을 加했고 (Caeser, Tacitus의 記錄은 再檢討할 必要가 아니라) 文
獻이 土地共有制를 主張하는 從來의 學者들 사이에는 不當히 解釋되고 있었다는 點을 指摘하면서
今世紀初의 個別主義的 歷史認識의 立場을 뚜렷히 나타냈던 것이다。經濟史認識에 있어서는 이와 같
은 傾向은 今世紀初의 所謂 歷史主義로 불려지는 一般歷史思潮와 크게 關聯되고 있음은 두말 할 것
도 없다。그러나 今世紀初의 이와 같은 經濟史의 個別主義的 認識은 具體的인 事象을 重視하는 나머지
歷史認識에 있어서의 發展的인 路線을 이해하려고 말았던 것이다。實證史學의 歷史家에 있어서
와 하가지로 이 時期의 經濟史家들도 具體的인 史料에 沈潛해버리고 그로부터 結論의 理論도 고
집이 빠지는 못하고 말았다。具體的인 歷史事象에 對한 研究——二十世紀初葉의 經濟史家들의 主要
한 成果——에 立脚하여 새로운 理論을 構成하는 일은 今世紀의 三十年代를 前後하여 始作되었다。

〔參考〕 文 獻

「문헌」의 古典的學說에 對立하는 二十世紀初의 英國 經濟史家들 N. Neilson, *English Manorial
Forms*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xxiv, 1929); A. Clark *Serfdom on Essex Manor 1308
—78*,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XX, 1905). A. Ballard, *Woodstock Manor in the Thir-
teenth Century* (Vierteljahrsschrift für sozial und Wirtschaftsgeschichte Bd. VI, 1908). K. Feilung,
an Essex Manor in the Fourteenth Century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xxvi, 1911); F. M.

Stanton, Types of Manorial Structure in the Northern Danelaw. Vinogradof(ed) Oxford Studies in Soc. and Leg. Hist.; vol. ii Oxford 1910) F. G. Davenport,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 Norfolk Manor, 1085—1565 Cambridge, 1905.

原始的 土地所有關係의 關係 古典的經濟史學 著者 K. Lamprecht, Deutsches Wirtschaftsleben im Mittelalter; Wittich Die wirtschaftliche Kultur der Deutschen zur Zeit Caesars (Historische Zeitschrift 1897).

Fleischmann, Altgermanische und alttrümliche Agrarverhältnisse in ihren Beziehungen und Gegensätzen. 1906, derselben, Caesar, Tacitus, Karl d. Grosse und deutsche Landwirtschaft 1911. R. Hildebrand, Recht u. Sitte auf den primitiven wirtschaftlichen Kulturstufen, 2. Aufl. 1907.

其他: J. v. Keussler, Zur Geschichte und Kritik des bäuerlichen Gemeindebesitzes in Russland, 1876. Derman-Ross, The early History of Landholding among the Germans, 1883. Fustel de Coulanges, Histoire des institutions Politiques de l'ancienne France, 1889—90.

二十世紀初葉의 經濟史學은 十九世紀史學의 一般化傾向이 無謀한 危險을 犯했다가 點을 強調하면 數 많은 反證을 提示 함으로써 큰 成果를 거두었으나 이로하여금 經濟史學은 體系를 잃고 混亂에 빠지고 말았던 것은 前述한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混亂에서 科學的體系의 실마리를 차지한 것은 今世紀의 五十年代를 前後하여 始作되었으며 이러한 現代史學의 課業은 Kosminsky, Postan, Urriss, Manoloux, Wadsworth, Heaton 등 一連의 著者들에 依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著者들은 주로 中世後期로부터 近世初期를 對象으로 삼았고 이 時期의 生産樣式의 變遷을 中世後期の 諸地方의 確實한 史料에 依據하여 究明해 왔던 것이다. 코스민스키 및 포스탄은 十三世紀로

부터 十五、六世紀사이의 英國農村에 있어서의 農業經營樣式의 變遷을 具體적인 史料에서 論證함으로서 勞働地代와 貨幣地代에 對한 古典的 論說의 公式을 論駁했다。코스민스키는 一二七九—一二八〇年代의 Funded Rolls를 檢討함으로써 領地의 大小에 따라서 또 領地의 所屬關係에 따라서 Labour Service가 各々 다른 比重과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는 點을 밝힘으로써 古典적인 學說에 對하였고 포스란은 十二世紀와 十四世紀사이의 英國에서 나타난 feudal reaction을 指摘하면서 勞働地代로부터 金納制로의 移行을 時代적으로 明確히 區分짓는 古典學說에 對抗했던 것이다。十二世紀부터 十五、六世紀에 이르는 사이의 英國農村事情에 關한 코스민스키와 포스란의 實證的研究는 中世後期の 農業經營樣式의 變遷을 明確히 해주었으며 이로써 歐羅巴 農村의 近代化過程에 對한 確固한 指針을 얻을수 있게 된 것이다。

안원, 만로, 위즈, 위스 등 一連의 學者들은 主로 中世後期の 農業經營樣式의 變遷過程을 實證적으로 究明함으로써 工業의 近代化問題를 둘러싼 古典的 理論에 對하여 新理論을 展開시켰다。即 이들은 十五、六世紀로부터 十八世紀의 産業革命에 이르는 사이의 工業經營樣式의 變遷에 着眼하였고 近代의 工業經營樣式의 萌芽는 이 時期에 자라나는 農村手工業形態에서 차저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近代의 産業組織의 發展系譜를 十六世紀以來의 英國産業에 關한 諸文獻(主로 經濟條例)을 檢討함으로써 古典的 學者들이 믿으려 하는 바와는 달니 都市의 資本家에서가 아니라 農村에서 자라난 自由로운 手工業者에서 차저 왔던 것이다。그리하여 近代産業資本에 對한 古典的 圖式인 商業資本→先貸制商業資本→近代의 産業資本은 이들의 實證적인 究明에 依하여 否認되고 말았다。이를 新理論에 依하면 都市의 商業資本은 近代의 産業資本의 前身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農村에서 자라나는 自由로운 工業이 近代의 産業組織으로의 發展을 阻止하는 役割밖에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農村은 地盤으로한 半農半工에서 成長한 Yeomanry 階級은 都市의 商人의인 living 階級과 싸워나가면서 매뉴팩추워의 形態로서 近代의인 産業組織으로의 道程을 밟아 왔던 것이다.

안원마르 위즈워스等 一連의 學者들의 中世後期の 工業組織의 變遷 및 코스민스키포스탄等學者들의 農業經營樣式의 變遷에 關한 實證的인 研究에서 얻은 成果는 爾來 現代經濟史學에 많은 示唆을 주었으며 이러한 問題解明의 方式은 오늘날 經濟史學者에 繼承되어 各方面에서 새로운 成果를 올리고 있다.

〔參考〕文 獻

- Postan, The Chronology of Labour Services (Transactions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4th series, vol. xx, 1937. 收入, The Fifteenth Century (Economic History Review vol. ix, 1939)의 Revisions in Economic History 附錄(附錄) Kosminsky, Services and Money Rents in the thirteenth Century (Economic History Review, vol. V, 1935) 及 同誌의 附錄(附錄) Postan의 附錄(附錄) The Hundred Rolls of 1279—80 as a Source for English Agrarian History (vol. iii, 1931) 參照 C. S. and C. S. Crwin, the Open Fields Oxford 1938. Unwin, Industrial Organization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1904. 收入 Studies in Economic History, 1927. Manour,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Eighteenth Century, 1937. A. P. Wadsworth S. J. De L. Mann, the Cotton Trade and Industrial Lancashire, 1700—1780. 1931. Heston, The Yorkshire Woollen and Worsted Industries, 1930. E. E. Power, Tudor Economic Documents 3 vols 1935.
- 其他 T. S. Ashton, The Industrial Revolution, A study in Bibliography 1937. G. W. Daniels,

The Early English Cotton Industry 1920. T. S. Ashton and J. Sykes, The Coal Industry of the Eighteenth Century 1929. W. H. B. Court, The Rise of Midland Industries, 1938. A. D. Doid.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North Wales 1933. H. Hamilton,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Scotland, 1933. C. Bauer. Unternehmung u. Unternehmungsformen in Spätmittelalter u. in der beginnenden Neuzeit 1936. J. Stieder, Zur Genese des modernen Kapitalismus 1935.

十九世紀經濟史學의 一般化傾向에 對해서 具體的인 史料究明으로 再批判을 試圖하는 現代經濟史學은 研究의 對象及 史料取扱에 있어서 特別히 多量點에 많은 注意를 기울이고 있다. 卽十九世紀經濟史學은 經濟制度史에 많은 關心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따라서 法制史研究와 발마추어 領主的 支配體制에 關한 問題가 보다 主要한 位置를 차지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事情은 十九世紀後半期以來의 社會主義學派經濟史學에 있었어도 概一般이 었다. 이 社會主義學派經濟史學은 被支配階級인 農民에 對한 搾取樣式에 關心的 焦點이 놓여 있었으나 이러한 搾取樣式은 封建的 支配體制 特別히 支配構造에서 차저 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封建的 支配構造의 解明도 中世農民經濟史의 重要한 一面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서는 中世農民經濟史의 가장 重要한 而이 解明되 었다고는 할수 없는 것이다. 大領主와 小領主와의 從屬關係 領主와 農民의 支配關係 土地의 貸與樣式 이런點도 重要하기는 하나 보다더 貸與받은 土地에서 農民이 어떠한 樣式으로 이를 經營해 나가는가도 重要하다. 中世農民의 生産性的 向上 또는 萎縮은 領主의 搾取形態에도 依存되나 이와 함께, 또 오히려 보다더 農民의 農業經營樣式에도 依據하고 있기 때문이다. 前述한바 코스민스키, 로스란을 爲始한 現代經濟史家가 歐羅巴經濟史解明에 있어서 十二、三世紀와 十五、六世紀의 農村에 注目한것도 이러한 觀點에서 온것이 었다. 十八世紀의 産業革命期에 있어서도 近代的 機械의 發明

에 따르는 產業經營樣式의 變遷에 對한 研究는 이 時期의 經濟史解明에서 重要한 位置를 占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나.

〔參考〕 文 獻

Kosminsky, Postan, Unwin Mantoux, Wadsworth, Heaton 等 前提한 諸書를 參照.

二、問題 點

生産手段의 支配關係보다도 그 經營樣式에 많은 關心을 갖고 實證的인 研究에 依하여 古典的인 經濟史學의 成果를 再檢討함으로써 成長해온 現代經濟史學이 오늘날 問題삼고 또 삼아야 할點을 드려보면 다음과 같다.

아세아의 生産樣式에 關한 問題. 어찌보면 이 아세아의 生産樣式問題는 一九三九年에 生鮮學界에서 謄스의 遺稿가 發表된 以來 이미 結末을 지은 問題라고 할년지도 모른다. 그러나 謄스의 遺稿가 發表된 以來 問題의 決定的인 解明을 본點은 아세아의 生産樣式問題의 一側面에 關했은 뿐이고 全部에 關한 것은 아니었다. 問題는 오히려 이때부터 새로운面으로 展開되고 있는 것이다. 卽 謄스가 言及한 아세아의 生産樣式이란 어떠한 內容을 말한것이 었던가는 그의 遺稿가 發表됨으로써 明白히 되었으나 그의 見解가 어느程度의 妥當性을 갖는가 하는點은 이제부터 비로서 問題에 올을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세아의 生産樣式이 從來 우리史學界에서 問題된것은 두가지 面에서였다. 卽 아세아의 生産樣式이라는것이 謄스가 理解하는 經濟發展의 全系列에 있어 어떠한 位置를 占하고 있는가 하는點과 또 그것은 어떠한 內容을 말하는가 하는點이 었다. 그리하여 여기關해서는 謄스의 古典的인 記錄이 明白치 못했던 때문에 從來 學者들의 解釋이 區區했던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一九

三九년에 發表된 그의 草稿의 一部인 「資本制生産에 先行하는 諸形態」는 그의 經濟史認識의 總決算이 있으며 아세아의 生産樣式에서 提起되었고 上記한 두가지點에 對해서는 明確한 解明을 주었던 것이다.

卽 遺稿에 依하면 아세아의 生産樣式은 原始共同制的 生産形態가 發展함에 있어서 나타난 一生産形態이며 그것은 그메시아及 로오마의 生産形態 또 게르만의 生産形態와는 다른 하나의 特異한 生産樣式으로 理解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原始的 共同制가 發展함에 있어서 歷史的 所與條件에 따라 나타난 것이며 모든民族이 한가지로 經過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先古代的인 生産樣式도 아니며 封建社會의 東洋的 變形도 아니었던 것이다. 歷史的 所與條件이라 함은 「氣候나 土壤의 物理的構成에 物理的으로 條件지어진 그 利用法에 敵對的 諸種族、또는 隣接種族에 對한 關係에 또는 移住、歷史的 諸事件等等을 隨伴하는 變化」를 말한다. 이리하여 아세아의 生産樣式은 아세아의 特異한 歷史的 所與條件에서 나타난 生産形態인 것이다.

또 아세아의 生産樣式的 內容은 다음과 같다. 「個人的 所有는 存在하지 않고 다만 占有가 있을 뿐이며 實際의 所有者는 共同體다. 따라서 所有는 土地에 對한 集團的 所有로만 存在한다」 아세아의 社會에 있어서는 아직 個人이 共同體로부터 分化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個人的인 所有關係가 形成되지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共同體를 母體로서 그의 結合的統一體인 專制君主主國家를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共同體關係의 末分解위에 그의 結合體로서의 集權的인 專制國家가 形成되었다는 것이 아세아의 社會의 特徵인 것이다. 그리하여 「結合的 統一體가 이 모든 小集團外에서 最高의 所有者 또는 唯一한 所有者로서 나타나게 된다. 專制君主는 共同體를 通하여 個人에干與하는 것이다」 이러한 共同體는 自立的으로 存在할 수 있으며 그 内部에서는 工業과 農業이 結合되

이 있으며 「그自體속」에 再生産乃至 擴大되는 生産의 諸條件을 가추고 있다. 「各小共同體」는 서로 隣接하여 있으면서 植物과 ھا가지로 서로 交涉이 없이 生存하여 간다. 「共同體의 剩餘勞動部分」은 結局은 一個의 人物로서 存在하는 最高의 集團에 所屬되는 것이며 個人은 「本質上」 共同體의 統一이 그안에 人格化되어 있는 者의 財産 卽 奴隸」라고 말하고 있다. 要컨대 아세아의 生産樣式에서는 土地는 專制君主의 所有이고 個人은 共同體를 媒介로 이 土地耕作에 分與하며 剩餘生産物은 共同體를 通하여 專制君主에 收納되는 것이며 이러한 形態를 맑스는 總體的인 奴隸制라고 불렀던 것이다.

아세아의 生産樣式에 關한 從來에 發表되었던 맑스의 古典的인 記錄에서 때때 했던點은 이 遺稿에 依하여 明確히 된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問題는 이것으로 끝나는것은 아니다. 都大體 아세아의 生産樣式이 우리學界에서 問題에 오르게된 動機는 中國社會의 基本性格을 規定하려는에서 始作되었던 것이며 그러는限 이問題는 中國 古代社會와의 關聯에서 再檢討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맑스自身은 勿論 이 아세아의 生産樣式이란 概念을 創出해 내는데 있어서는 古代東方諸國、印度及 東洋諸國을 對象해 왔으며 그內容을 構成하는 資料는 近東諸國 印度及 中國에서 取해 왔던 것이며 이러한 經路를 거쳐 아세아의 生産樣式의 概念이 東洋諸國의 古代에 어느程度의 妥當性을 갖는가하는點은 이 究明의 對象이 되어야 할것이다. 特히 中世東洋의 集權的인 官僚支配體制를 造成해낸 東洋의 古代社會의 基本性格에 關한 問題는 맑스의 前稿遺稿의 規定과 아울러 새로운 關心事가 아닐수 없다. 然히 맑스는 一九四一年에 「經濟學의 諸問題」誌에서 맑스의 新草稿에 解明된 前資本制의 生産諸形態、라는 題目으로 이問題를 取扱하면서 三國時代以前の 中國社會를 이 아세아의 生産樣式에 該當한다고 主張하고 있는것인데 이러한 問題는 中國及 其他東洋諸國의 古代에 關한 實證的인 研究成果의

上章위에서 現代經濟史學에서 다시한번 論議되어야 할 問題라고 생각 한다.

〔參考〕 文獻

古典的인 文獻 K. Marx, Zur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1859, derselbe, Das Kapital, 1867. derselbe, Die britische Herrschaft in Indien 1853, 같은의 遺稿 資本制生産의 先行하는諸形態 (飯田實一氏의 日譯本) Marx-Engels, Die deutsche Ideologie, 1845-6, Engels, 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es, 1884, derselbe, Herrn Eugen Dührings Umwälzung der Wissenschaft 1878,

〔其他參考〕 文獻——코바레프, 古代社會論(西村雄三 日譯本 昭十), 마자르, 支那農業經濟論 (井上照丸 日譯本 昭十) 웨·라이할트, 前資本主義社會經濟史論(永住道雄 日譯本 昭十一) 森谷克己, 아세아의生産樣式論 昭十二) 스몰베, 世界古代史 第一卷(廣島定吉 日譯本 一九三九) 郭沫若, 中國古代社會研究, 藤枝丈夫 日譯本 昭六) 白南雲, 朝鮮社會經濟史.

純粹莊園의 成立에關한 問題——歐羅巴農村의 近代化過程을 따져보면 그 淵源은 十三世紀以後의 莊園內部에 있어서의 農業經營樣式的 變遷에까지 溯及하게 된다. 卽 十三世紀를 契機로한 古典的莊園 (Alte Grundherrschaft)의 分解, 純粹莊園 (Reine Grundherrschaft)의 形成은 그 白體 近代的 農業經營의 端初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契機는 될수 있었기 때문이다. 純粹莊園의 形成時期는 歐羅巴諸國에 있어서 반드시 同一치는 않았으나 大體로보아서 十三世紀를 前後하여 이터났던 것이며 이로써 閉鎖的인 莊園經濟는 領主財產을 넘어서 活氣를 띠우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時期는 農村의 近代化道程을 살필에 있어서 우리의 關心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爲先 問題되는것은 어찌하여 이 純粹莊園에 있어서의 農業經營形態가 姑息的인 古典的인 莊園과는 달나서 生産

力發展의 契機가 되는가 하는 點인데 여기 對해서는 從來 勞動地代의 現物地代 乃至 貨幣地代로의 轉移를 물고 있다. 勞動地代의 消滅이 農民의 生産性을 昂揚시킨 것은 事實이었으며 至十六世紀以後 勞動地代로의 逆行이 農村의 近代化를 阻止하는 役割을 했다는 事情에서도 이主張은 首肯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경우에 問題를 돌려서 그러면 中世前期의 古典的 莊園에 있어서 農民의 生産力을 阻止한 것은 領主의 勞動地代의 強化에 由源된 것이었던가 하면 問題는 달나진다. 社會主義史家들은 中世初期의 莊園經濟에 있어서 領主의 搾取가 甚했다는 點을 強調하고 있는데 (古典的 莊園에 있어서의 搾取態樣은 勿論 勞動地代에 重點이 놓여있다) 中世初期의 領主經濟의 閉鎖的인 點에서 미루어보아 領主의 農民搾取가 甚하지 않은 限度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짐작된다. 領主들은 領主財產圈을 地盤으로 삼고 封鎖的인 經濟를 이룩하고 있었던 것이며 다른 領主와의 交換關係를 맺지 않았으며 따라서 領主의 生活은 若干의 隸屬工人의 產品도 있기는 했으나 全的으로 農民經濟에 依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中世初期의 領主의 需要의 質과 量에는 一定한 限度가 있었으며 이 限度가 同時에 農民에 對한 搾取의 限度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莊園을 單位로한 閉鎖的인 經濟는 同時에 農民經濟의 發展을 規定하고 있었다. 農民에 對한 勞動地代의 強化가 農民生産의 發展을 阻害한 것이 아니라 領主財產圈을 單位로한 中世初期의 經營樣式이 이를 阻害했던 것이다. 그러하여 中世後期에 나타난 이러한 經營樣式의 變遷이야말로 農村生産力發展의 契機가 되는 것인데 따라서 여기서 問題되는 것은 이러한 經營樣式의 變遷을 가져온 要因 다시 말하면 領主의 財產圈을 破碎하고 이루어지는 經營을 가져오는 要因에 있는 것이다.

集權的인 土地國有制에 있어서는 事情은 이와는 다르다. 集權的 官僚支配下에 있어서는 官僚는 領地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의 家計는 收租權을 移讓받음으로써 農民의 現物貢納에 依據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當初부터勞動地代는問題가되지 않았다。官僚는그의家計의中心을王이居住하는곳에集結시켰고그들의經濟는外國使臣을通하여國外交換과直結하고있는것이다。그리하여中世東洋의諸官僚들의需要는歐羅巴諸侯의 그것에比할바아니었고이러한事情은農民에對한搾取度を強化함으로써需要를充當할수있는것이있다。이경우에農民經濟는交換經濟에直結된것이아니었으므로王의首都에제아무리交換이이러났다고하더라도그것은農民의生産力을發展시키는要因은커녕오히려交換物의獲得을目的하는貴族의搾取度の強化로나타났던것이。 이것이結局에있어서는農民의生産力의發展能力을極度로壓縮해버렸던것이다。

純粹莊園의成立을中心으로領主財産制와集權的土地國有制에있어서의農民의生産性の究明은歐羅巴諸國의近代化問題와東洋社會의沈滯性問題를解決해주는關鍵이되는것이므로이時期의研究는現代經濟學界에負荷된重大한課題의하나가되지않을수없다。

〔參考〕 文獻

J. W. Aspley,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England 1914, Frederic Seebohm, The English Village Community, 1966. Vinogradoff Villainage in England, Essays in English Medieval History, 1897. 同人的 The Growth of Manor. 1904. 及英國學者研究會關於前掲書"Manor, Eineit-ung zur Geschichte der Mark-, Dorf- und Stadtverfassung und der Oefentlichen Gewalt, 1851. Imma Sternegg Die Ausbildung der grossen Grundherrschaften in Deutschland während der Karolingerzeit, 1875. K. Lamprecht, Deutsches Wirtschaftsleben in Mittelalter, 1886. Soeliger, Die soziale und politische Bedeutung der Grundeigentum im früheren Mittelalter, 1903. Alfons Dopfisch Die Wirtschaftsentwicklung der Karolingerzeit, 1912. Below, Entstehung der deutschen Stauds vereinde,

1889. J. Kautscher, Allgemeine Wirtschaftsgeschichte im Mittelalter, 1928. M. Weber, Wirtschaftsgeschichte. Abriss der universalen Sozial- und Wirtschaftsgeschichte, 1923. W. Sombart, Der Moderne Kapitalismus, 1921. H. Cunow Allgemeine Wirtschaftsgeschichte, 2. Bd. 1926-31.
- 白南雲, 朝鮮封建社會經濟史, 馬來風, 中國經濟史(田中齊日譯本, 昭十七) 翟同祖, 中國封建社會(小竹, 田島日譯本, 昭十七) 加藤繁, 支那經濟史, 昭二, 森谷克己, 支那社會經濟史, 昭九.
- M. Weber, Konfuzianismus und Taoismus, Gesam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Bd. 1.
1927. K. A. Wittfogel, Die Probleme der chinesischen Wirtschaftsgeschichte,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 Bd. 57. 1927. derselbe, Wirtschaft und Gesellschaft Chinas Bd. 1. 1931.

純粹莊園成立以後에 關한 問題——純粹莊園이 成立된 以後 歐羅巴農村에는 여러가지 變遷이 나타났다. 勞動地代의 消滅乃至 弱化에 따라서 農民의 領主에 對한 身分的 隸屬關係가 弛緩해졌고 農民이 自己經濟에 全力을 기울일수 있게된으로써 農民이 生産性向上의 契機를 갖게되었다. 莊園內處處에는 都市가 發生했고 都市는 農村과의 交換關係를 맺음으로써 農民層에 財産分化를 이루었고 農民에게 致産 또는 沒落의 機會를 造成했던 것이다. 十三世紀로부터 十四、五世紀에 있어서 歐羅巴農村은 거의 한가지로 이와 같은 發展道程을 밟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情勢는 以後 一律의으로 歐羅巴農村은 近代化로 이고며 드립킨은 아니었다. 이 交換關係에서 어느層이 이 새로운 秩序의 擔當者가 되는가에 따라서 歐羅巴諸國에서는 여러가지 樣相을 나타냈던 것이다. 英國에 있어서는 交換關係가 農村에 強力하게 浸透됨으로써 農民自身이 交換經濟의 擔當者가 되었고 이로써 農民層이 階級分化기 徹底히 이루어졌다. 農民中에서 致産者는 小農民의 土地를 買得하고 또 領主의 土地

를 借地하여 農村에서 分出된 自由雇農을 雇用하여 經營的인 農民(Betriebsmäßiger Bauer)을 形成하였다. 이와 같은 經營模式은 農地所有者와 農業經營者를 分化시켰고 近代的 地代를 創出함으로써 農業의 資本制的 經濟을 誘導하는 것이었다. 獨逸에 있어서는 事情은 이와는 달랐다. 都市의 交換經濟는 農民自體속에 浸透된 것이 아니라 領主가 交換經濟의 擔當者로서 前面에 나타나게 했고 農民은 依然히 自然經濟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領主는 交換對象物을 얻기 위하여 直領地經營을 擴大하고 農民賦役勞動을 強化했다. 이러한 事情은 農民의 階級分化가 充分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으로 自由雇農을 내내히 分出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形態로 十三世紀以後의 地代經濟은 近代的인 經營模式으로 誘導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勞動地代에 依據하는 古典的莊園에 있어서의 經營으로 逆行시켰던 것이다. 다만 이것이 古典的莊園과 다른 점은 古典的莊園에 있어서는 領主財産圈을 單位로 自足的 經濟를 形成시켰던 것인데 여기서는 領主의 經營은 商品을 目標로 하고 있었으며 이런 經營形態는 Knapp, Below 등이 指摘하는 Gutsherrschaft 인 것이다. 여기서는 古典的 莊園經營에 시와는 달나서 領主의 經濟는 交換經濟에 直結되어 있었던 때문에 그들의 需要는 無制限으로 擴大되고 있었고 農民에 對한 賦役의 強化는 보다 더酷했다. 그러므로 Kosminsky, Postan 와 이러한 Ostpreussen 의 Gutsherrschaft를 feudal reaction 이라고 規定 했던 것이다. 佛蘭西에서는 이와 事情을若干 달나했다. 여기서도 交換經濟는 農村에 直接浸透되지는 않았고 領主及 農地에 投資한 都市의 商人이 交換經濟의 擔當者가 되었으며 이들은 土地를 獨逸에 있어서와 같이 賦役을 強化함으로써 經營하는 것으로 아니고 英國에 있어서와 같이 自由雇農을 雇用하여 經營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들은 土地를 農民에게 折半地代를 받고 小作을 주었던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半封建的인 現物地代를 創出해 왔던 것이다. 歐羅巴諸國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中世末期의 農村事情에 對한 解明은 實證的인 現代經濟史學

의 業績이 었다。그러나 問題는 이로서 完全히 解明된 것은 아니었다。歐羅巴諸國에 있어서의 十二世紀以後의 農村의 近代化過程에 있어서 이와 같은 地方的인 偏差를 나타낸 要因에 對해서도 아직 滿足할 만한 解明이 이루어지지 않는 못했던 것이다。

【參考】文 獻

Kosminsky, Postan Orvin 著 前提論 G. F. Knapp, Bauernbefreiung und der Ursprung der Landarbeiter in den älteren Teilen Preussens, 1887. F. Lütge, Mitteldeutsche Grundherrschaft, 1934. V. Wittich, Grundherrschaft in Nordwestdeutschland, 1896. G. Aubin, Zur Geschichte des gutsherrlich-bäuerliche en Verhältnisses in Ostpreussen. 1910. Max Sering, Erbrecht und Agrarverfassung in Schleswig-Holstein 1908. H. Maybaum, Entstehung der Gutswirtschaft in Mecklenburg 1916. Below 著 前提論 Gras, The Evolution of the English Corn Market, From the Twelfth to the Eighteenth Century, 1915. F. M. Page, Bidentes Hoylandie; a Medieval Sheep-Farm. (Economic History, Sup. to E. J., vol. i, 1925) H. Levi Gray, The Commutation of Villen Services in England before the Black Death,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xxix, 1914) J. E. T. Rogers, History of Agriculture and Prices in England, 1866.

資本制의 工業經營의 成立에 關한 問題—資本主義成立期에 있어서의 工業의 發展過程에 對해서는 若干의 是非는 없지 않으나 今일에 있어서는 어느程度 決定的인 解明의 段階에 이르고 있다。이 것은 農村의 近代化過程의 究明과의 連結에서 비로서 正常한 理解에 到達했던 것이다。資本制的인 工業經營의 端初態로서의 매뉴팩처어는 中世後期の 都市준프트에서 胚胎해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는 對立하면서 준프트의 支配圈 밖에서 成長해 나왔던 것이다。이러한 農村工業의 發展은 封建的

題다。資本主義諸國의 進出에 依한 後進國의 近代化過程은 資本制的 生産樣式의 發展度에 따라서 發展의 樣式을 나타내기는 했으나 資本制的 生産樣式自體의 存續을 前提로 하는 限 거기에는 一定한 限界線이 그 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이러한 限界線이야 말로 오늘날 資本主義諸國이 形成한 經濟圈內에서의 各種의 矛盾을 惹起시켜 왔던 것이다。또 資本主義諸國이 後進國을 近代化시킬 때 있어서 後進國에서 어느 階層과 結託했든가에 따라서 後進國의 近代化의 基本性格이 規定되는 것인데 이것은 前述한바 資本主義諸國의 限界線과 關連된 것으로서 後進國의 半封建的 秩序의 存續은 이러한 구조에서 어느 나다난 必然的인 結果로서 理解되는 것이다。이와 같은 事情은 同時에 後進諸國에 있어서의 民族運動의 基本性格도 規定해 준다。

第一次大戰後 所謂 中心國 社會主義國家는 非單 所謂 國內에서 成功的인 發展을 이루어 슬픈만이 아니라 資本主義諸國과 對決하면서 漸漸 그 支配圈을 擴大시키고 있다。그리하여 이勢力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世界到處에서 後進國家로 進出하고 있으며 여기에 새로운 樣式의 近代化가 나타나게 되었다。이러한 新勢力이 後進國家에 對해서 어떠한 樣式으로 近代化任務을 遂行하고 있는가는 前者의 경우와 對比해서 새로운 關心事가 되는 것이다。이러한 問題의 究明은 現代의 中國을 爲始한 東洋諸後進國家의 基本性格을 規定해주는 것이며 同時에 所謂 經濟圈의 強弱度와 後進國家의 티로化의 可能性問題도 이로서 解明될 수 있는 것이다。

〔參考〕 文獻

前掲書及

War Production Board, Industrial Mobilization for War, -History of the War Production Board and Precdecessor Agencies, 1940-1945, 1947. W. W. Wilcox, The Farmer in the Second World

War, 1947, A. H. Hansen Economic Policy and Full Employment, 1947. ④入の America's Roll in World Economy, 1945, S. E. Harris, ed. Postwar Economic Problems, 1943. ⑤入の Saving American Capitalism 1948. N. S. Euclmann and F. A. Lutz, Redding the World Economy, America's Roll in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1947. Alexander Baykov The Development of the Soviet Economic System, 1946. K. Marx, Ueber China und Indien, 1853-62. H. B. Morse, Chronicles of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5 vols. 1926-1929. W. Mi bün, Oriental Commerce, 1813. H. D. Fong, Postwar Industrialization in China, 1947. H. T. Fei, Peasant life in China, 1946.

(一九五三年八月二日)